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 보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재기)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월29일 광명 스피드 대회회의실에서 게임·스마트폰 과몰입 청소년 심리 지원 사업인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성과 보고회(사진)를 개최했다. 김성택 기금조성총괄본부장과 구무환 광명 YMCA 이사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지난해 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보완점과 개선사항을 논의했다. ‘2020 마음 따라가는 자전거 길’ 사업은 코로나19로 정상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와 방역 절차를 준수하며 지난해 11월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당초 1회차만 계획된 프로그램을 2회차로 나눠 실시하며 게임과 스마트폰 등에 과몰입된 70여 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 활동을 펼쳤다. 개인 및 집단상담을 통해 치료 방식을 결정하는 맞춤형 심리 치료와 자전거교실을 개최해 자전거 바로 알기·만들기·타기 등의 교육과 자전거 라이딩 등을 통한 활동 치료를 진행했다.

경륜경정 제도·인권 혁신협의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총괄본부는 1월23일과 28일 각각 광명 스피드, 미사 경정장에서 ‘2021년 제1차 경륜경정 제도·

인권 혁신협의회’(사진)를 개최했다. 경륜경정 경주실 관계자와 한국프로사이클협회, 한국경정선수회 임원진이 참석해 지난해 회의에서 논의된 제도와 인권 관련 개선 조치 사항과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협의했다. 경륜경정 선수를 대표해 참석한 프로사이클협회와 경정선수회 임원진은 안전훈련 지원 확대 검토, 선수등급 상정 등 제도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선수의 고충에 공감하고 향후 다각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가졌다. 경륜경정 제도·인권 혁신협의회는 선수, 외부 인권전문가, 경주 시행체가 참여해 선수의 인권보장과 소통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지난해에는 경주 득점 방식, 선수 복지 제도, 선수동 시설 환경 개선과 등급심사 변경기준 확대 등을 논의해 개선한 바 있다.

정용운 기자

경륜 ‘삼복승식’을 정복해보자

1축 경주는 선수 유형 파악 꼭!

선행·젓하기형, 같은 유형 조합 주의
양축경주에선 선행형+추입형 조합
3파전 땀 연대·대립 선수 제외 필요

삼복승식은 2004년 도입되면서 그때까지 경륜 팬에게 가장 인기가 높던 쌍승식 매출을 단번에 뛰어넘었다. 이후 2018년 쌍복승식이 등장하기 전까지 삼복승식은 승식의 한 축을 담당했다. 아직까지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삼복승식은 베틱의 주요 전략으로 활용되며 보조 전략으로도 이용된다. 이런 점에서 삼복승식 전략은 경륜 팬이 반드시 정복하고 싶은 승식이라 할 수 있다.

●삼복승식 정복 위한 경주 유형별 전략

첫째, 선수가 확실해 보이는 1축 경주는 해당 선수의 유형에 따라 전략을 고심해야 한다. 추입형이 1축인 경우는 짧은 승부에 의존하므로 선행형이나 젓하기형과 묶는 전략이 전범상 안정감이 있다. 인기 차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행과 젓하기형은 힘을 바탕으로 주도권을 장악하는 만큼 경주 전개상 충돌할 수 있어 같은 유형과



결승전을 앞두고 마지막 힘을 쏟아 트랙을 질주하는 경륜 선수들. 경륜의 다양한 베틱 전략 중 2004년 도입된 삼복승식은 현재 베틱의 주력 전략이자 유용한 보조 전략으로 경륜팬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경주 유형별로 승식을 적절히 섞는 등 전략을 세심하게 짜야 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 포인트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의 조합은 주의해야 한다. 일방적인 경주 흐름의 경우에는 마크형(추입형) 두 명을 불러들일 수 있어 이번 전략으로 노력할 만하다. 우수후보가 2명인 양축 경주는 전범상 선행형+선행형, 추입형+추입형의 형태라면 이번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선행형+추입형의 균형 조합이 안정적이다. 특히 추입형+추입형에서는 하위권이라도 선행형을 선택해 과감히 노력

볼 만하다. 일반적으로 우수후보 3명인 3파전 경주는 3명 중 2명 모두 착순권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마크형(추입형)이나 연대적으로 대립적 관계의 선수를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좋다. 혼전 경주는 다소 전력상 열세여도 라인 전환과 돌파력 조종술을 갖춘 기종과 선수가 복잡한 전개에 강점을 보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삼복승식은 효율적인 보조 전략

삼복승식은 배당이 낮을 수 있지만 환수율에서는 효율적이다. 삼복승식은 쌍승식 6개로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쌍승식 30배를 6구좌를 통해 1만 원씩 베틱한 경우와 삼복승식 5배에 1구좌 6만 원을 베틱한 것과 효과는 같다. 하지만 지속적인 베틱이라면 30배와 5배의 확률을 고려할 때 삼복승식 전략이 승산이 높고, 반면 쌍승식은 구좌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기기 어렵다. 특히 베틱 전략이 난해한 혼전이나 쌍승식이 까다로운 경주라면 삼복승식은 더욱 빛을 발휘한다.

삼복승식만 선택하는 주요 전략도 가능하지만 쌍승식 선택에 변화의 여지가 크지 않은 강축의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 등에서는 보조전략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복승식의 매력에 떨어지며 쌍승과 복승을 선택하는 고전적인 조합에서 탈피해 쌍승과 삼복승, 또는 쌍복승과 삼복승의 조합을 선택하는 경륜 팬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 한바퀴’의 김동우 경륜전문가는 “승식의 적절한 조합은 베틱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만큼 예리한 경주분석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경정 배당 흐름? 확정검사·소개항주에 집중

확정검사로 모터와 보트 성능 확인
소개항주선 모터의 기력 판단 가능

경정의 승부를 결정짓는 요소는 선수와 모터의 기력 등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주 추리와 베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확정검사와 소개항주 기록이다. 좋은 모터를 배정받았어도 확정검사와 소개항주 기록이 좋지 않으면 입상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고, 중급이나 중하급 모터인데도 최상급 모터와 시속이 엇비슷하게 나온다면 입상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확정검사·모터와 보트 객관적인 성능 가능

확정검사는 당회차 출전하는 선수들이 입소 후 추첨으로 배정된 모터와 보트를

결합해 화요일 지정훈련에서 실제 경주 참여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한 기록이다. 측정기준은 1턴 마크에서 2턴 마크 쪽으로 백스트레치 센터에서 2턴 마크까지 150m를 주행한 속도다. 확정검사는 모터와 보트의 객관적인 성능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지만 선수(조종자)가 기록 측정 후 정비를 통해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 실제시합 전까지 최종적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화요일 열리는 지정훈련은 1차와 2차로 나뉘며 각각 확정검사를 시행해 기록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주 당일인 1일차 수요일과 2일차 목요일에도 오전 지정훈련 시 확정검사를 하는 만큼 입소 시점부터 경주 마지막 날인 목요일까지 확정검사 기록을 꾸준히 비교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미사 경정장 수면 위를 질주하는 경정보트들. 경주 예측과 베틱전략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확정검사와 소개항주 기록을 살펴보고 분석하는 것이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소개항주·고객들에게 모터 상태를 보여주는 시간

확정검사가 실전 경주를 위한 준비였다면, 소개항주는 미사 경정장을 방문한 고객에게 선수가 출전을 앞두고 모터 상태를 보여 줄 수 있는 시간이다. 소개항주 기록은 경주 시작 전 6명의 선수가 경주수면을 2주회 동안 전속으로 주행한 뒤 확정검사와 같이 직선 150m를 활주한 시속이다. 선수(조종자)의 체중과 모터보트의 세팅, 어떤 프로펠러를 장착했느냐 등도 소개항주 기록에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모

터 기력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소개항주 기록이 빠른 선수의 모터가 가장 좋다고 인식되며 기록이 좋은 선수가 경기 결과를 주도할 정도로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 임병준 쾌속정 예상분석 전문가는 “확정검사와 소개항주를 비롯해 온라인 스타트 역시 기록이 빠른 선수의 입상률이 높다. 하지만 소개항주만 믿고 추리와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조건과 컨디션을 모두 감안해 종합적인 추리를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용운 기자

스포츠 종합

이동섭 신임 국기원 원장 본격 업무
“태권도 개혁 100일 프로젝트 시작”



이동섭 국기원 원장

이동섭 신임 국기원 원장이 1일 직원들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이 원장은 상견례 자리에서 “국기원 직원들의 성원으로 당선됐다”며 “세계 태권도 가족들은 과거가 아닌 미래로 가라는 주문을 했고, 국기원에 가서 개혁하라는 소명을 주셨다. 개혁을 위한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돼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국기원을 만들겠다. 국기원이 자랑스러운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견례에 앞서 공명정대한 업무수행과 일체의 급품, 향음, 편의를 청탁하지도, 반지도 않을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에도 서명했다.

김성 기자 posterboy@donga.com

서울국제마라톤 운영비 일부, 국비 지원 받는다

지자체 개최 국제대회 지원사업 선정
플래티넘 레벨 마라톤...10월말 개최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대회가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대회를 포함해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코리아오픈(서울), 평창국제청소년동계대회, 창원월드컵사격대회, 청송아이스클라이밍월드컵 등 13개 시도의 22개 대회가 올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은 지역체육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국제경기대회 중 지역과 종목 연계가 우수하거나 경쟁력 있는 대회를 선정해 국비(10억 원 미만)를 운영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진행된 공모에는 13개 시도의 31개 대회가 응모했다. 문



서울국제마라톤 겸 동아마라톤 대회가 ‘2021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 스포츠동아DB

체부는 1·2차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을 선정했다. 지원 대상에는 비대면(온라인) 대회 5개도 포함됐다. 서울시와 동아일보가 함께 주최하는 서울국제마라톤은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이 전 세계 마라톤대회 중 최고 수준의 7개 대회에만 부여하는 ‘플래티넘 레벨’을 획득한 권위 있는 대회다. 또 IAAF가 선정한 세계육상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올해 대회는 10월 말 개최 예정이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브리지스톤골프 ‘e12 Contact’ 볼 25일 출시

지난해 타이거 우즈 볼로 품질 사태를 빚었던 브리지스톤골프가 25일 ‘e12 Contact B’ 볼을 출시한다. 일명 ‘Contact B’라고 불리는 e12 Contact는 직진 성능, 비거리, 고스핀 웨지 샷이 특징이다. 색상은 무광 컬러를 포함해 총 4가지.

e12 Contact는 아이오노머 커버, 액티브 가속 맨틀(이너 커버), 그라데이션 코어 등 3 피스 구조로 구성돼 있다. 아이오노머 커버는 가격, 내구성, 비거리는 우수하지만 딱딱한 타감과 어프로치 스핀양이 적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신제품은 담플의 혁신을 통해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을 비약적으로 극복했다는 것이 브리지스톤골프의 설명이다.

브리지스톤골프는 “담플에서 클럽 페이스와 볼의 마찰 효과를 발견했다. 담플은 커버와 함께 볼과 클럽 페이스가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다. 스핀 컨트롤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브리지스톤골프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 ‘Contact Force Dimple’은 담플 중앙에 위치한 돌기로 클럽에 닿는 면적을 38% 향상시켜 골퍼가 의도한 샷을



브리지스톤골프가 25일 출시를 앞두고 공개한 e12 Contact, 일명 ‘Contact B’. 사진제공 | 석교상사

그대로 잘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브리지스톤골프는 빅 B로고가 각인된 e12 Contact를 내놓으며 ‘Contact B(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브리지스톤골프 용품 국내 총판을 담당하는 석교상사는 본격적인 출시에 앞서 2월 첫째 주 홈페이지를 통해 리뷰어를 모집한다. 이벤트 일정은 추후 브리지스톤골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